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및 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

A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Enrichment Program for Multicultural Couples

저자 (Authors)	김금희, 민기연, 이영선 GumHee Kim, Ki-yeon Min, Youngsun Lee
출처 (Source)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 2015.11, 202-214 (13 pag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1) , 2015.11, 202-214 (13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콘텐츠학회 The Korea Contents Society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560145
APA Style	김금희, 민기연, 이영선 (2015).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및 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202-214.
이용정보 (Accessed)	인하대학교 165.246.135.155 2016/03/29 19:4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및 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

A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Enrichment Program for Multicultural Couples

김금희, 민기연, 이영선
인하대학교

GumHee Kim(kgkd1@hanmail.net), Ki-yeon Min(2008kku@hanmail.net),
Youngsun Lee(ylee@inha.ac.kr)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특별한 개별적 요구에 기반을 둔 부부 의사소통 및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 효과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 및 선행연구 검토와 참여자의 요구조사, 전문가 면담의 과정을 통해 개발되었고, 4쌍의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11주간(주 1회, 회당 120분) 부부 대화기법, 부부 상담을 활용한 부부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으로 적용되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수집된 녹음파일, 활동지, 연구자의 현장노트 등의 질적자료를 통해 살펴본 프로그램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 부부의 친밀성이 향상되었고, (2) 부부간의 대화가 증가되었으며, (3) 특히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식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 "협력적인 의사소통"으로 변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부부관계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부부대화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과 부부갈등을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략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중심어 : | 다문화가족 | 커뮤니케이션 | 부부상담 | 부부갈등 | 부부관계증진 | 문제해결전략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apply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enrichment programs for married multicultural couples and verify its effects. This preliminary program was developed based on results from reviews of existing intervention programs, participants' interview for their needs and professionals' feedback on program. The program includes 11 sessions(once a week; 2 hours per session) focusing on communication strategies and related activities using marital counseling. Four multicultural couples participated in the intervention program. Qualitative data was collected during the program, including voice recording files, activity sheets, and filed notes conducted by researchers.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data analysis, we could find the intervention program had an positive effect on the communication between multicultural couples. Specifically, the intervention program could (1) enhanced intimacy in the couples, (2) started conversation and improved communication patterns between the couples. And also (3) modes of communication were changed to more collaborative communication through this program. The marital communication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layed a catalytic role for marital conversation in multicultural couples and used professional counseling techniques and strategies in solving and managing marital conflict.

■ keyword : | Multicultural Family | Communication | Marriage Counseling | Marital Conflict | Marital Relationship Enrichment | Problem Solving Strategies |

* 본 논문은 인하대학교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5년 06월 02일

수정일자 : 2015년 07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7월 13일

교신저자 : 이영선, e-mail : ylee@inha.ac.kr

I. 서론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기 시작했고[1], 특히 2002년 이후부터는 한국으로 유입되는 결혼이민자의 증가율이 28%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수는 150,994명에 이른다[2]. 한국인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결혼이민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이라는 새로운 가족 형태에 주목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정의 양적인 증가에 따라 정부는 2006년에 '다문화·다종족 사회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하고 '혼혈인 및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과 '결혼 이민자 사회통합안'의 두 정책을 채택하였다. 2008년에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생활정보제공, 교육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다문화이해교육의 실시 등을 규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통해, 이 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 지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다[3].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범위가 한국 생활에 대한 초기 적응이나 주류 문화와 언어인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 내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으로 인한 갈등의 심화,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 등이 주요한 사회현상으로 보고되고 있다[4]. 따라서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부'간의 소통과 이해[5], 이들의 결혼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시도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부부상담 분야에서 가정 내 다양한 특성과 이슈를 가진 부부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의 성과들이 과거에 비해 활발하게 보고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부 커뮤니케이션, 관계증진에 관련된 연구는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부의 의사소통은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매개이다. 따라서 부부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적, 비언어적인 부부 친밀감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부의 친밀감은 부부 관계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하며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부부가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는 결혼 전, 그리

고 결혼생활 초기에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부부생활, 즉 결혼생활은 이상적이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문화와 가치관을 충분히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부부는 한국인 부부의 경우와 비교하여, 단기간에 결혼이 진행되고[6], 결혼동기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응'을 위해 상호문화를 습득하고 인정하기 보다는 결혼이민자인 배우자에게 한국문화를 강요하는 형태가 더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정 부부, 특히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이혼 건수는 2008년부터 증가하다가 2012년도에 약간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났다[7]. 그러나 국내 총 이혼 건수 가운데 다문화가정 부부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정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이혼 등의 가정 해체를 야기하는 요인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미숙한 한국어사능력, 시집가죽구성원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문제, 본국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과 의무문제, 문화적 차이[8][9], 한국인 배우자의 음주와 언어폭력, 정서적, 신체적 폭력 등이 다문화가정 부부가 경험하는 주요 어려움으로 보고되고 있다[10-12]. 또한 부부의 대화단절 또는 무관심 등의 형태로 유지되는 부부 관계는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한 가정 내에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는 특수성을 가진 다문화가정은 '차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소통에 중심을 둔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비교해 그 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며, 부부대상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에도 한국인 남편의 관심과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 이는 단순히 대상자의 낮은 참여도 문제라기보다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프로그램 구성의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부부가 직면하고 있는 부부갈등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 관리하

기 위한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문제가 있는 특수한 집단을 위한 서비스로 인식하는 것 역시 대상자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국내의 일반적인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은 부부 관계의 질을 향상하여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부부의사소통 프로그램’,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운영되고 있다[13].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도 이처럼 ‘문제’를 가진 부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현재 부부의 관계를 개선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방적, 지원적 차원의 프로그램으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내 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14-19]은 한국인 부부의 부부관계 증진, 결혼 만족도 향상, 의사소통 증진, 부부갈등 해소 등을 목적으로 개발되고 실행되어 왔다. 그러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성은 보편적인 프로그램에 이를 고려한 특별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나 부부간의 친밀도, 결혼 만족도 등 부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문화가정에서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피고, 강점 강화와 약점 보완을 위한 요소들을 추가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부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언어·문화적 차이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사소통과 부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의 특수한 개별적 요구에 기반을 둔 부부의사소통 및 관계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효과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및 관계증진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과 그 성과를 통해 다문화가정 부부의 건강한 관계와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지원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부부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이론과 실재를 위한 방향을 제시 할 것이다.

II.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및 연구절차

1. 목표수립 및 문헌 검토, 주요 구성요소 확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부부 의사소통, 부부갈등 해소, 부부관계증진, 부부상담 등을 주제로 수행된 선행 연구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먼저, 부부간 대화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통해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선행이론과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23-25],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효과 검증 등을 실시한 주요 중재연구들의 프로그램 구성요소와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에 대한 결과를 [표 1]로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표 1. 다문화가정 부부대상 프로그램 주요 구성요소

연구자 (연도)	프로그램 내용	운영방식 및 평가
[20] 최미나·유명수 (2014)	-Gottman의 행복한 부부의 집 7단계 모형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부부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부부를 대상으로 1회기의 프로그램을 6주간 진행 -실험집단과 비슷한 조건의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비교분석
[21] 김정옥 (2013)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통합치료적 내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활동내용: 모래놀이치료, 석고팩활동, 춤, 명상, 의사소통기법 등.	-부부를 대상으로 1박 2일간 6회기의 숙박형 프로그램 진행, 6주후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 검증
[13] 최진아 외 (2012)	-부부간 상호 이해와 긍정적인 관점을 위한 프로그램 -의사소통, 갈등관리, 분노조절, 문화적차이 이해의 4가지 주제로 회기 구성 -언어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시청각 자료 및 신체 활동 활용	-부부를 대상으로 8회기의 프로그램을 2주간 진행, 3주후 면대면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를 심층 분석
[12] 연영란·양수(2012)	-부부관계증진프로그램 (ENRICH 프로그램) -부부관계 강점영역과 성장필요 영역, 의사소통기술 강화, 갈등해결과 스트레스 감소, 재정관리기술, 여가 등을 주제로 6회기 구성	-부부를 대상으로 6회기의 프로그램을 6주간 진행,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 -의사소통, 갈등해결, 결혼 만족도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22] 소병숙·정혜정 (2009)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이론을 활용하여 부부관계 향상을 목표로 프로그램 내용 구성 -활동을 통한 경험과 실습 중심 프로그램	-부부를 대상으로 6회기의 프로그램을 3주간 진행, 사전 사후검사와 4주후 추후검사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 검증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의사소통의 효율성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	
공통요소	
-자신탐색, 신뢰감 쌓기, 부부이해, 의사소통방식, 자기표현, 경청기술, 부부대화방법, 갈등해결	
↓	
제한점 및 요구	보완 방향
-자기/상호이해를 위한 실효성 있는 활동 -친밀감 형성을 위한 활동 -그룹상호간 신뢰 형성 -구체적인 자기표현 방법(느낌과 생각 구별하여 표현하기, 명확히 전달하기) -실제적인 대화 전략(반영, 인정, 공감하기)필요 -부부친밀감 형성 -부부갈등해결 및 관리	-성격검사지, 부부매치도 활용, 부모기억을 통한 상호이해 -긍정적, 부정적 님은골 찾기 -별칭 짓기(자기이해) -집단 간 사회적 지지 -느낌대화(예, 부부편지쓰기) -부부대화전략 -친밀감 증진 활동(예, 등대기, 발씻기, 댄스, 10초 동안 배우자 눈을 바라보기, 포옹하기) -부부치료 음악 듣고 자신의 감정 나누기 -갈등해결을 위한 부부상담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부 관계 향상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 결혼만족도, 갈등대처방식,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자아 존중감, 부부적응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진정한 부부관계 향상을 위해서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프로그램 효과성 달성도 중요하지만, 부부들이 대화나 소통의 기법을 터득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의사소통 기술 및 대화 방법 습득만을 통해서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기술을 형성하고 관계를 증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부 의사소통 및 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주요 요소에 친밀감 증진을 위한 활동을 포함하였다. 포옹하기, 댄스 등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활동은 친밀감을 증진하여 서로의 다른 문화에 개방적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언어적 제약을 덜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부갈등 해결을 위해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자신의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느낌대화법, 전문적인 상담기법, 이마고 부부대화 치료 기법 중 하나인 반영하기, 인정하기, 공감하기[25] 대화법의 내용을 보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2. 참여자 요구조사 및 전문가 면담

1단계에서 확인한 프로그램의 목표와 구성요소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구조를 1차적으로 구성한 후, 내용의 보충 및 프로그램의 구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부부 그룹 인터뷰와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1.1 다문화가정 부부의 요구

먼저, 부부상담 및 의사소통증진 초기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부부 4쌍을 대상으로 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정 현장 실무자인 센터장과 현장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부부갈등을 경험했거나 부부갈등을 겪고 있으며 현재 대도시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정 부부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최종 연구 참여자들은 5년 이상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지속한 필리핀 다문화가정 부부 3쌍과 베트남 다문화가정 부부 1쌍으로 전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5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결혼 후 한국 또는 가정 및 배우자와의 초기 적응 단계를 지나 부부 관계 증진을 위한 실제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초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해 실시한 그룹인터뷰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부부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참여자 부부의 일반적 특성

구분	연령	출신국	학력	직업	결혼기간	평균수입	자녀수	
A	남편	48	한국	고졸	전문직	7년	350-500미만	2
	아내	37	필리핀	대졸	주부			
B	남편	51	한국	고졸	전문직	14년	350-500미만	2
	아내	42	필리핀	고졸	일반직			
C	남편	50	한국	초졸	계약직	15년	100미만	2
	아내	40	필리핀	대졸	일반직			
D	남편	47	한국	고졸	전문직	6년	350-500미만	1
	아내	32	베트남	고졸	일반직			

연구 참여자인 외국인 아내들의 한국어 능력수준은

각각 상이 했는데, 아내 A는 기초적인 어휘와 문법 정도만 익힌 수준으로 간단한 문장은 말 할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아내 B는 일상생활과 공공시설 이용 등을 위한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고, 아내 C는 일상생활에서는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상황에 적절한 대화도 가능한 수준이다. 아내 D는 아내 B와 비슷한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이 베트남어 학습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들 부부에게 연구의 취지 및 목적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그룹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주제는 '다문화가정의 어려움', '갈등 시 대처방안', '평소 부부의사소통 방법', '결혼 만족도' 등이었다. 이들 다문화가정 부부는 서로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과 언어, 문화차이, 아내의 사회생활에 대한 부부의 인식 차이, 부부 성 불만족, 가정 경제 상황과 자녀양육에서 오는 갈등 등과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다문화가정 부부의 요구사항은 [표 3]과 같다. 이들은 부부상담, 부부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고, 갈등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우자의 성격을 이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배우자의 대화 회피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원하고 있었다.

표 3. 다문화가정 부부의 요구

주제	요구 내용
다문화가정의 어려움	상호인정, 비언어적 소통 개선
갈등 시 대처방안	건강하게 부부싸움 하기
평소 부부의사소통 방법	친밀성 기르기
결혼 만족도	인정하기

1.2 전문가 면담

전문가 면담은 다문화가정 부부 또는 부부의사소통 분야의 현장전문가 3인(부부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자, 전문상담가, 대학교수)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인 부부와는 다른 '다문화가정 부부의 특성', '언어나 문화차이', '원활한 부부의사소통을 위한 필수요소',

'부부갈등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능력', '갈등해결에 있어 중재자의 역할 등'에 관해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 결과, 전문가들은 기질적 차이에 더해 문화적·언어적 차이를 가진 다문화가정 부부의 경우에는 갈등을 최소화 하거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상호문화차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갈등문제의 원인을 파악 할 수 있고, 효과적인 갈등중재를 위한 부부대화 적용을 통해 부부간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부부상호이해를 돕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교수가 프로그램 설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1.3 프로그램 구성 및 필드 테스트(field test)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및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필드 테스트를 통해 현장적용성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견고한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와 그룹 인터뷰를 통한 요구조사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부부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세부 회기별 목표 및 활동 내용은 [표 4]와 같다.

1-3회기에서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확인하고, 자신과 배우자를 집단 내 구성원에게 소개하는 과정을 통해 집단이 안전한 공간임을 확인했으며,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면서 집단 내 친밀감을 형성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4-6회기는 나-전달법(I-message)을 사용하여 배우자에게 자신을 알리고, 나와 배우자에 대한 이해를 요하는 과정으로 배우자의 말에 집중하고 자신의 의견에 대한 느낌과 생각 전달을 통해 부부 대화의 긍정적인 전달 방식을 학습하였다. 7-11회기는 마무리 단계로 부부대화 실습을 통해 부부갈등 해결 및 부부갈등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탐색함으로써 부부갈등 대처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그룹 구성원간 서로의 장점과 경험을 나누었으며, 부부간에는 관계 증진을 위한 협력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

표 4. 회기별 부부소통 프로그램 세부내용

범주	내용			
프로그램의 목표 및 방향	-자기이해에 기반한 상호(문화)이해 -부부의사소통 향상 -부부갈등 관리 및 해결			
회기	주제	목표	내용 및 활동	시간 (분)
초기 1-3회기	*오리엔테이션 *친밀성 증진 *부부대화기법	-프로그램이해 및 동기부여 -부부대화이해 및 친밀감 형성	-자신을 소개하기 -배우자 소개하기 -서로를 알아가기 (상호(문화)이해)	120
	근거(출처)-이마고부부대화 기법[25]			
중기 4-6회기	*소통을 위한 대화(편지쓰기) *부부의사소통 이해	-부부의사소통을 위한 대화 실시 -부부갈등 직면하기	-나의 느낌 전달 -상대방 말에 집중 -편지쓰기 -자신의언어로 편지쓰기)	120
	근거(출처)-ME부부대화법[23], 나전달법(I-massage)[26]			
후기 7-11회기	*갈등 해결 *갈등 관리 *새로운 출발	-부부갈등에 대한 이해 -부부갈등탐색 -경험 나누기 및 변화 -서로의 장점 바라보기	-부부갈등대처 방법 -부부대화 실습 -대화를 통한 갈등 극복 -협력적인 소통 -공감대 형성 -유지 강화	120
	근거(출처)-[5],[12]			

개발된 프로그램은 요구조사에 참여하였던 4쌍의 다문화가정 부부들에게 총 11주간(주 1회, 회당 120분),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진행되었으나,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위해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인 한국인 남편들 혹은 한국어가 좀 더 능숙한 연구 참여자 아내들의 도움을 받았다. 프로그램 진행 전 과정은 녹음을 통해 기록되었으며, 매 회기 종료 후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여 연구 자료로 삼았다. 또한 연구 진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맥락과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는 매 회기 참여자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등을 관찰하고 현장노트를 기록하였다. 현장노트와 전사본을 기본으로 하여 수집된 연구 자료는 연속적 비교법[27]의 단계에 따라 부호화하고, 부호들 간의 연속적인 비교를 통해 유형화 하여 분석하였다. 질적 분석 결과, 76개의 코드에서 27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고, 이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초기, 중기, 후기) 연구 참여자들의 메시지, 의사소통방식, 관계변화를 중심으로

로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III.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및 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현장적용과 성과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및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결과, 프로그램 실시 후 부부의사소통기법과 부부대화에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부부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대체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부부문제라고 인식하는 주제에 대해 참여하는 대화내용과 대화방식, 부부 관계의 변화 등을 회기별(시간대별) 변화와 주제에 따른 메시지, 의사소통 방식, 관계 및 맥락으로 구조화하였다[표 5].

표 5. 대화의 맥락과 관계변화

구분	메시지	의사소통 방식	부부의 관계
초기 (1-3)	-상대방에 대한 불만사항	-역기능적 의사소통 -단답형	-부부상호이해 부족 -부부간 대화 회피
중기 (4-6)	-자신과 부부에 대한 고민 -부부대화 개선 방안 -행동 변화 요구	-부부간 대화 시도 -반영/인정/공감을 바탕으로 한 부부 의사소통 시도	-부부대화 필요성 인식 -부부 친밀감 형성
후기 (7-11)	-행동 변화 요구 -상대방에 대한 감정(미안함, 고마움)표현	-부부간의 대화 교환 -협력적인 의사소통	-자기이해 및 배우자 이해 증진 -부부 친밀감 향상

1. 메시지

프로그램 초기(1~3회기), 참여자들은 친밀감 증진을 위해 자신과 배우자를 소개하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사항도 함께 토로하였다. 남편들은 배우자와의 갈등 요인으로 ‘배우자인 아내에 대해 잘 모른다’, ‘아내의 지나친 신체 접촉이 불편하다’,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 ‘아내가 상냥하지 않다’, ‘대화를 시도하지만 거절 한다’, ‘아내의 과소비가 문제이다’,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 ‘잡은 모임과 술자리를 갖는다.’ 등을 꼽았다.

남편들은 아내를 상냥해야 하고, 한국에 시집을 왔으면 한국 사람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잘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인 아내가 한국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동화주의적 적응)는 전제하에 과거 자신의 어머니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살아왔던 삶을 여성 결혼이민자인 아내에게 요구하고 있었다. 한국 남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아내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표현하였다. 반면, 여성 결혼이민자인 아내들은 남편에 대하여 ‘화를 자주 낸다’, ‘소리를 크게 질러서 무섭다’, ‘자신과 아이들에게 욕설을 한다’, ‘시집 가족구성원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는 성향이 있어서 자신이 혼자 해결해야 하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 등이 갈등 요인이라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는 부부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대화의 주요한 메시지로서 관찰되었다.

프로그램 중기(4~6회기)에 들어서자 부부들의 의사소통, 특히 대화의 내용이 변화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반영과 인정, 공감을 바탕으로 한 부부간 상호 대화시도 과정에서 결혼생활에 대한 단순한 불만토로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직면한 고민 해결을 위한 주제로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인 부부들은 현재 자신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성향이 과거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부족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는 서로에 대한 이해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프로그램 후기에 이뤄진 부부대화 실습은 앞서 다루어진 자기이해 및 배우자 이해를 바탕으로 부부간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친밀감이 향상 되었고, 이는 부부갈등과 문제점을 해소하고, 서로의 역동을 수용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 부부대화는 이들의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쳤는데, 남편은 처음에는 아내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기대하고 원했지만 아내와 자신의 어머니는 분명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의미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하고 집사람이 왜 그렇게 할까 하고 생각했어요.(중략)그런데 그 나라 문화가 그렇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몰라서 이제는 알 것 같아.”(남편 D)

“당신이 한국말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들을 수 없으니까 상처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 미안해. 9년 동안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마음 고생했어, 고맙고 미안해.”(남편 B)

“남편이 잔소리가 많고 맨날 잔소리하고 화냈는데.(중략). 교육받고 지금은 좀 이상해요.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처음에 한국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나를 이해해 주고 슬플 때, 기쁠 때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아내 A)

“보잘 것 없는 나에게 시집와서 예쁜 아이 낳아주고 이렇게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사랑해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남편 A)

남편들은 아내들의 한국어가 미숙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아내가 말로 인해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했다. 그러나 아내들은 자신의 입장을 한국어로 표현하는데 제한이 있었지만 남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행동이 변화하는 모습에 자신이 이해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다. 부부들이 프로그램 초기에 나타난 갈등 문제에 직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동 변화는 부부들의 긍정적인 참여를 이끌어냈고 부부간 친밀감 또한 향상시켰다.

2. 의사소통 방식

참여한 부부들의 초기 갈등은 상대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는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가정 경제 활동과 가정수입과 관련한 문제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였다.

“난 한국 사람에 대해 잘 몰랐어요. 한 달 수입과 재산도 그때 이야기한 것과는 모두 달랐어요. 그래서 내

가 한국에 와서 6년 동안 혼자 벌어서 살았어요.”(아내 C)

이들 부부는 결혼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사전정보가 매우 부족했으며, 배우자에 대한 사전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결혼 이후에 그것들이 모두 부풀린 것(거짓된 정보)으로 확인되었을 때 심각한 부부갈등이 초래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결혼 초기부터 부부간의 불신이 쌓였고, 이는 의사소통의 방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 상태로 현재까지 결혼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전달법(I-message)을 활용한 중기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남편이 화를 내는 부부대화 상황에서 한국말을 못하는 아내는 자신의 정서 상태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한다. 더불어 남편의 무관심, 일정치 않은 가정의 평균수입, 한국 음식을 강요하는 것, 권위적이고 지시적인 남편의 태도, 부부대화 회피, 부부간의 불신,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 등에서 비롯된 부부갈등이 가정해체위기를 가져오는 요인들이라고 보았다. 참여 부부들은 위와 같은 불만 사항을 이야기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만 쳐다보며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남편은 화가 나면 나보고 무조건 나가라고 해요.(울먹임). 이때 필리핀으로 가라는 건지 집을 나가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아내 C)

참여 부부 중 남편들은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소통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이러한 부부소통 방식은 부부간의 대화를 더욱 단절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중기에서 부부들은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마고 부부대화법 중 배우자의 말을 거울에 비추듯 다시 한 번 비춰주는 반영기법, 자신의 판단을 버리고 상대방이 표현하는 내용을 인정해주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방식으로 부부대화를 이

끌고, 자신의 언어로 편지쓰기를 진행하였다. 또 자신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성향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보는 시간도 가졌다.

“나는 아버지의 기억이 안 나요.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침묵)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욕을 한다는 것이.”(남편 C)

부모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남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미해결된 과제에서 부터 기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배우자의 성향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그룹구성원들의 지지도 얻었다.

“내가 있잖아요. 괜찮아 힘내요.”(아내 C)

그동안 여성 결혼이민자인 아내는 욕설과 함께 화를 내는 남편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이 부모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책상에 엎드린 상태로 말을 이어가지 못했을 때 아내는 당황해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때 연구자의 정서적 지지와 함께 다른 남편들이 모두 다가와 남편의 어깨와 손을 잡고 위로하며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자 아내 역시 다가와 남편을 끌어안았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이마고 부부대화법의 3가지 요소인 반영(배우자의 말을 거울에 비추듯이 그대로 비추어 되돌려 주는 것)과 인정(표현된 배우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공감(배우자에 의해 표현된 내용을 자신이라도 것처럼 느꼈을 거라는 것)을 통해 부부들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부부의 관계

프로그램 초기, 여성 결혼 이민자인 아내들은 남편과의 대화 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인해 한국어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울 때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부부대화를 회피하는 경향도 있어 남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한국어로 싸울 수가 없으니깐 그냥 가만히 있거나 타갈로그어로 혼잣말로 중얼거린다.”(아내 B)

이러한 상황은 부부의 관계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악화시키고 갈등 상황을 초래하고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부부 대부분이 부부 관계에서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었고, 이는 프로그램 참여의 동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남편들이 부부의사소통과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했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여성 결혼이민자인 아내들은 남편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참여하였고 프로그램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도 나타났다. 하지만 프로그램 중기에는 배우자를 지지하는 변화를 보였다.

“나는 우리 집사람이 부부대화 프로그램에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석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이제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했어요.”(남편 B)

“처음에는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부 문제로 한 곳에서 1년 동안 혼자서 상담을 받아 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 나오려고 했는데.(중략). 조금씩 달라진 남편을 보니 나도 마지막까지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아내 B)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 결혼이민자는 부부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온 경험이 있지만 부부문제를 해결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과거 자신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경험 때문에 초기에는 부부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부부대화를 통해 부부관계가 좋아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특수한 요구에 반응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실패의 경험이나 다문화가정 부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학습된 무기력

을 해소하는 것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즉, 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부의 요구에 반응하며, 초기에 작지만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상담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난 지금 120킬로를 달려서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으려고 왔어요. 2시간 이후에 끝나면 다시 내려가야 해요.”(남편 B)

여성 결혼이민자의 태도변화는 남편들의 행동과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기의 변화는 초기보다 빠르게 나타났는데, 이들 부부들은 부부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부대화 기법에 집중하였으며 진지하게 부부대화를 실천하였다. 프로그램 후기로 접어들며, 서로의 장점 바라보기, 경험과 변화 나누기, 부부 간 공감대 형성유지 및 강화를 통해서 부부들의 행동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서로에 대한 배려의 모습을 보이고 배우자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등의 표현을 하였으며, 자신이 먼저 변화하는 것이 부부의사소통 향상의 중요한 열쇠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 보다 우리 부부가 가장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구요.(중략). 좀 더 일찍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았을걸.(중략). 난 이걸 원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은 부부대화 덕분에 하루에도 여러 번씩 아내가 전화해서 얘기를 해요. 오히려 신혼 때 보다 지금이 더해요. 기분이 좋죠.”(남편 B)

부부들은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였고, 부부갈등 해결과정에서 부부들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이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 특히, 부부의사소통 및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간 갈등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부부갈등 해결을 위해 부부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였고, 이점이 부부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첫 걸음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부부의 친밀감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었고 그로 인해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배우자를 선택했지만 책임지지 않고.(중략) 가슴이 아파요. 이제 무관심하지 않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행복하게 살기로 노력해요.”(남편 D)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는 부부의 친밀감을 향상하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협력적인 부부의사소통은 소원해진 부부관계를 친밀한 부부관계로 변화시켰고, 부부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정 부부의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의 사소통 및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프로그램이 참여자 부부의 의사소통과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실시된 부부소통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다문화가정 부부의사소통, 관계증진을 위한 주요 요소는 의사소통, 결혼만족도, 갈등대처방식,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자아 존중감, 부부 적응 등이었고, 이를 프로그램의 기본 요소로 구성하였다. 특히, 대상자 요구조사 및 전문가 면담에서도 드러났듯이,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보다는 상대를 무시하는 말투 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서로에 대한 불만사항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파악되었고, 이를 개선하는데 프로그램의 포커스를 두었다. 둘째,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그램 진행시기에 따른 부부의사소통 메시지, 의사소통방식, 대화 및 맥락의 관점에서 부부의사소통을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부부간의 대화 맥락에서 친밀감이 향상되었고, 상호협력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 대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연구자에게 의존하던 부부의사소통 방식이 부부의 친밀감 향상으로 부부 중심의 대화

로 옮겨가는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부부의 참여 동기를 강화하고 및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 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성공 경험 또는 과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대한 결론과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연구들은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이나 갈등요소에 주목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언어 문화적인 차이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부부갈등 해소 방안에 중심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13][20][21]은 프로그램 운영을 1박 2일, 매주 2회씩 3주 등 단기간으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부부가 자신들의 문제를 직면하고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프로그램은 충분한 성과를 이끌어내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주1회 11주간 진행 하였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부들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포커스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회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자의 특성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면, 참여자의 긍정적인 변화로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유무를 떠나, 참여자에게도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잠재적인 참여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상담자 또는 프로그램 개발자의 책무성 강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구체적으로 계획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부친밀감 향상은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한 토대로서의 기능을 한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이점에 주목하여 부부커플 요가[13], 모래치료[21]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사소통 프로그램의 핵심요소로서 친밀감 향상을 위하여, 부부의 신체적 접촉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명상을 통해 부부 숭결과 체온을 느끼기, 부부댄스, 부부 사랑의 편지쓰기 등을 구성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부의 경우 서로에 대해 이해할 기회와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고[5], 이는 친밀감의

결여로 이어지므로, 관계증진을 위해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순한 활동을 통해 친밀감을 서서히 쌓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감정과 정서의 교환을 위하여 보다 구조화된 활동이 계획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지원체계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부부대화를 건강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일정 부분 전문가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부부의사소통 프로그램의 전문가는 높은 다문화감수성과 다문화가정 부부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문화적으로 반응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부부의 지속적인 대화를 촉진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역 사회연계망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배우자인 남편에게도 가정 내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진 가족상담자와 같은 제 3자의 사회적 지지가 제공될 경우, 한쪽에게 동화주의적 적응이 강요되기 보다는 부부 또는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이해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이는 보다 건강한 관계의 구축을 기대해볼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부의사소통 프로그램은 갈등요소가 잠재된 다문화가정 부부대화의 물꼬를 열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뿐 만 아니라 일반 부부의 대화와 친밀감을 향상하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 및 다문화가정 부부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정 부부의 상호이해를 돕기 위해 부부가 함께 하는 부부대화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부부의 상호이해와 가정의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다른 가족 구성원과 자녀들의 이해도 요구되기에 부부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족과 자녀(청소년)에게까지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상담자는 전문가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의 언어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상담중심의 소그룹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 결혼이민자들과 그 남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한 본 연구에서도 남편과 한국어에 능숙한 참여자의 도움으로 프로그램 진행에 큰 무리는 없었지만, 다문화가정 구성원인 참여자들에게 한국어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요하는 데는 분명 언어적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는 참여자들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매개자가 필요하다. 이 매개자는 프로그램 진행과정상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자기 생각과 느낌을 정확히 표현하고 전달하도록 도울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구성원과 같은 문화권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은 경험을 가진, 한국어 역시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문화매개자(예. 한국 내 관련학과 석박사과정의 유학생 등)를 활용함으로써, 연구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해본다.

셋째, 현재 다수의 다문화가정 부부의사소통 프로그램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부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부부만을 위한 부부 상담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그룹활동에서 드러내지 못한 부부만의 문제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상담자가 부부갈등과 해소 과정을 관찰하기 용이하여 이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높은 다문화 감수성을 가진 부부상담 전문가와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부부의사소통 프로그램 진행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나,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부부대화 촉진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부부대화 및 상담 등을 통해 부부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다문화가정 부부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1] 이상립, “혼인이주 현상에 대한 인구학적 조망: 전망과 과제,” 한국인구학, 제36권, 제2호, pp.105-127, 2012.
- [2] 법무부 2014년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4.
- [3] 김혜영,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가족정책: 이념과 정책의 탈구,” 여성연구, 제87권, pp.7-43, 2014.
- [4] 위인백, “인권과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여성결혼 이민자 관련 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5호, pp.317-327, 2011.
- [5] 김금희, 김영순, 전예은,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부부간 협력적 의사소통에 나타난 사회적 상호작용 연구,” 언어와 문화, 제9권, 제2호, pp.73-100, 2013.
- [6] 한재희, 한국적다문화상담, 학지사, 2011.
- [7] 안전행정부 외국인 수 통계자료, 2014.
- [8] 한주리, 김인영, “다문화 가정의 부부 갈등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갈등 형성과 대처를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제19권, pp.159-196, 2012.
- [9] 김순옥, 임현숙, 정구철,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 가족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221-235, 2013.
- [10] 김계하, 선정주, 오숙희, “여성 결혼이민자 남편의 스트레스, 자존감 및 무력감,”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4권, 제1호, pp.29-39, 2013.
- [11] 김연수, “가족 탄력성 접근을 활용한 여성 결혼 이민자대상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4권, 제4호, pp.59-90, 2010.
- [12] 연영란, 양수,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갈등해결 및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제21권, 제3호, pp.250-261, 2012.
- [13] 최진아, 신희천, 김혜숙, 이현서, “도시지역 다문화가정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분석,” 한국 심리 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4권, 제3호, pp.505-531, 2012.
- [14] 박남숙, 연문희, “부부성장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 연구, 제3권, 제2호, pp.337-364, 2002.
- [15] 박수선, “신혼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건강가정지원센터 신혼기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1권, 제1호, pp.85-98, 2013.
- [16] 원복연, 박태수, 허철수, 김성봉, “현실치료를 적용한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검증,” 상담학연구, 제14권, 제6호, pp.3283-3305, 2013.
- [17] 이선희, 임성문 “통합적 행동 부부치료에 기초한 기혼여성의 결혼 만족도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한국 심리 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5권, 제3호, pp.449-476, 2013.
- [18] 정지명, “TSL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직장인의 결혼만족도, 부부적응과 직장-가정 갈등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 연구, 제38권, pp.125-148, 2013.
- [19] 한정희, *가트맨 부부치료 프로그램의 한국부부 집단상담 적용 및 효과검증*,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20] 최미나, 유평수, “Gottman의 이론을 적용한 다문화가정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9권, 제1호, pp.79-102.
- [21] 김정옥,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치료적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8권, 제3호, pp.157-177, 2013.
- [22] 소병숙, 정혜정, “결혼이민여성의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 이론을 기초로,” 한국 가족치료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31-151, 2009.
- [23] G. Calvo(1958), *Worldwide Marriage Encounter Korea 2010*, 한국 ME발표팀 지침서, 월드와이드 매리지 엔카운터 한국협의회, 2010.
- [24] Virginia Satir(1991), *아름다운 가족*, 나경범 역, 창조문화, 2003.

[25] Hendrix, Harville, *Keeping The Love You Find*, Atria books, 1998.

[26] 최연자, 이경완, 정춘화, “나 전달법과 자기노출 훈련이 여대생의 자기 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정신건강 학회지, 제17권, 제4호, pp.461-470, 2008.

[27] A. Strauss and J. Cor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2nd ed.)*, Sage Publication, California, 1998.

이 영 선(Youngsun Lee)

정회원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문학사)
- 2007년 12월 : University of Kansas, Dept. of Special Education(Ph.D)
- 2009년 3월 ~ 현재 :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장애청소년 전환교육, 다문화사회와 다양성교육, 커뮤니케이션

저 자 소 개

김 금 희(GumHee Kim)

정회원



- 2010년 2월 : 서울 디지털 대학교 상담심리학(상담심리학사)
- 2012년 2월 :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석사)
- 2015년 ~ 현재 :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박사수료)

<관심분야> : 부부의사소통, 부모교육, 다문화가족상담 및 교육, 부부상담

민 기 연(Ki-yeon Min)

정회원



- 2007년 2월 : 건국 대학교 국제무역학(국제무역학사)
- 2013년 ~ 현재 :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 석사과정

<관심분야> : 다문화교육, 청소년교육, 커뮤니케이션